

Press Release

이기영 개인전

지우고 지우다



53 years old, 2016, 55×4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전 시 명	지우고 지우다
전시일정	2016. 08. 31 – 2016. 10. 05
오픈닝	2016. 08. 31 (수) PM 5
전시장소	갤러리 플래닛 Gallery Planet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93 웅암빌딩 2F 갤러리 플래닛 T. 02 540 4853 www.galleryplanet.co.kr
전시문의	info@galleryplanet.co.kr
자료 다운로드	웹하드 ID galleryplanet PW planet GUEST 폴더 > 내리기 전용 > 이기영 개인전

갤러리 플래닛에서는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동양화의 현대적 해석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이기영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기영은 먹이라는 재료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뛰어 넘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실험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 결과 동양과 서양의 미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먹꽃 연작 중 1점(2×2m)을 포함하여 새롭게 시도한 신작들 10여 점을 선보인다. 처음 소개되는 형태의 신작들은 이전의 작업들에서 보여주었던 먹을 물로 지워내는 과정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지우고 또 지우는 일종의 수행과도 같은 행위 자체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아가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이기영의 작품이 갖는 근원적 의미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반추해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이 주는 경외감에서 출발한 그의 초창기 작품 세계는 시간의 다양한 흔적을 한 화면에 펼쳐내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작가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물은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을 통해 각기 다른 시간을 품고 있고 바로 그것이 자연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제의식은 먹 그리고 물의 조합이라는 동양적 접근을 버리고 여러 시도를 통해 얻어낸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에 의해 1차적으로 완성되어진다. 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비수용성 재료이다. 먹으로 그릴 때 물을 섞어가며 사용하지만 먹이 건조된 후에는 수용성 물질에 저항하게 된다. 작가는 먼저 한지 위에 소석회나 대리석 가루를 여러 번 발라 일종의 코팅된 바탕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위에 먹과 붓으로 작업을 하고 그것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먹으로 그려진 채 남겨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건조의 시간을 조정하여 결정된다. 그렇게 남겨지는 최종적 이미지는 의도와 우연, 계획과 즉흥, 이성과 직관이 서로 얹혀 있는 일종의 거대한 응결체가 된다. 작품의 매끈한 표면은 빛을 반사시키면서 먹의 농도에 따른 여러 색조와 하얀 여백의 조합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든다.

이기영은 최근에는 이러한 작품형태에서 더 나아가 없음, 즉 무(無)의 경지로 나아간다.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 주었던 더하고 지우는 제작 과정에서,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지워낸다. 이전의 먹꽃 연작에서 보이던 반추상의 형상들이 사라지고 먹의 옅은 흔적만을 남겨 놓는다. 이렇게 비워내고 지워내는 과정은 지금까지 작가가 탐구해왔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작가는 이러한 지움의 행위 그 자체에서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기영의 최근 작품에서는 이전에도 시도되었던 화면을 가로지르는 색선들이 더욱 눈에 띈다. 이러한 색선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징하며 흠을 파서 그 안을 상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기영의 신작들은 이 세계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화면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사유를 보여주는 이기영의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자연의 일부인 우리들 삶의 본성을 생각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먹과 여백의 조화, 표면이 자아내는 평면성의 극치 그리고 기하학적 선들의 조합은 현대미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미감을 관람객에게 전달해줄 것이며, 수행과도 같은 끝없이 지워내는 행위를 통해 비움의 미학 역시 선사할 것이다.

작 가 약 력

이 기 영 / 李 基 瑩 (b. 196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동 대학원 졸업
現,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 전공 교수

주요 개인전

- 2014 갤러리 플래닛, 서울
- 2013 이화익갤러리, 서울
- 2011 MAD(Museum of Art & Design), 싱가포르
- 2010 Zone Contemporary Art, 뉴욕
- 2009 이화익 갤러리, 서울
- 2007 코리아아트 갤러리, 서울
- 2006 갤러리 21+Yo, 도쿄
- 2004 금산갤러리, 서울
- 2003 아트포럼 뉴게이트, 서울
- 2002 이화익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16 중흥-한국화 2016,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5 세븐 사인즈, 박수근미술관, 강원
- 2014 로얄젤리, 갤러리로얄, 서울
- 2010 diversity at play, MAD(Museum of Art & Design), 싱가포르
- 2009 Floating Petals, 신세계 갤러리, 서울/부산/광주
- 2008 이기영, 이수경 2 인전, 이화익갤러리, 서울
- 2007 시간과 풍경이 만나는 정원, 갤러리 인데코, 서울
Dream, Contemporary Asian works on paper, Tina Newton gallery/ C.G. Boerner gallery, 뉴욕
- 2004 8 인의 선과 드로잉, 갤러리 조선, 서울
한중현대작가 11 인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3 동양화 Paradiso, 포스코 미술관, 서울
- 2002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4 개국 순방전, 에콰도르/페루/아르헨티나/멕시코
Today's Korean painting, CASO, 일본

2001 동양화 새천년 - 새로운 의식과 감성을 찾아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0 젊은 모색 2000,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

주요 소장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경기도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 / 핀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
이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전 시 작 이 미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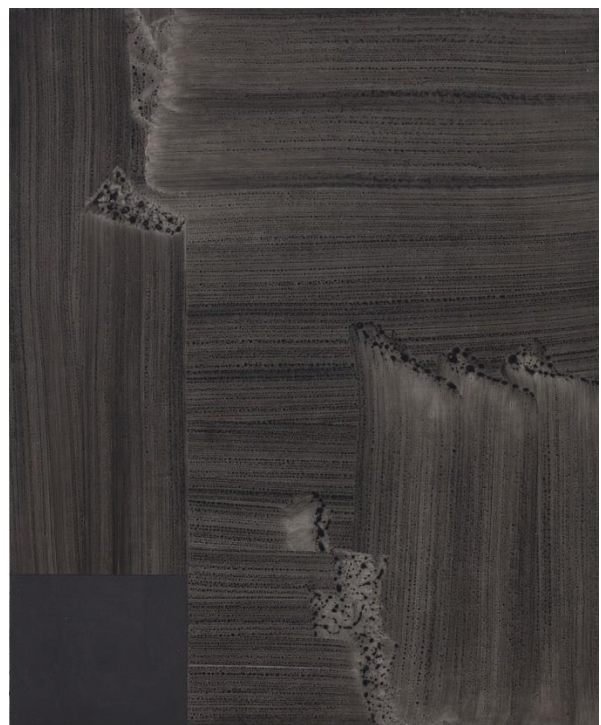
53 years old, 2016, 122×122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Black flower, 2016, 200×20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Blue30.3, 2016,
55×4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pigment



Graphite13.5, 2016,
55×4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graphite



Orange29.8, 2016,
55×4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pig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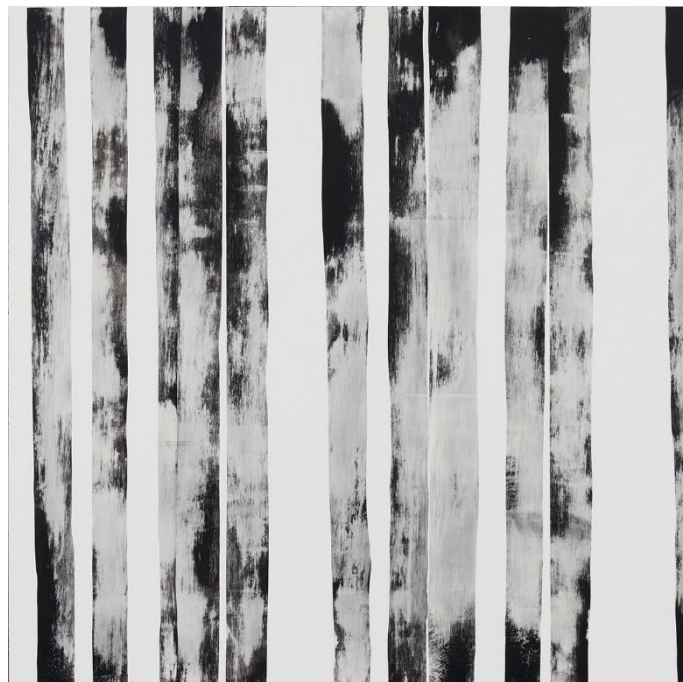
Orange55, 2016,
55×45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pigment



Silver50.3, 2016, 80×7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silver



White forest, 2016, 90×90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



White forest, 2016, 122×122cm, Mixed media on korean paper, ink cake